

‘살림’ 쪼들린다 했더니... 5년간 사회보험료 30% ↑

가계 소비지출은 12% 증가 그쳐... 노후불안 등 허리띠 졸라매

조세와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험이 30% 넘게 뛰는 동안 가계의 순수 소비지출은 10%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증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세금 등이 늘어났지만, 소비 지출은 이에 못미치고 있는 셈이다. 달리 말하면 가계가 줄일 수 없는 것만 빼고는 가급적 씹씹이를 줄였다는 이야기이고, 그만큼 살림은 더욱 빠듯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3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0년 67만4000원이던 소비지출은 2015년 81만원으로 약 20%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이차비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같은 기간 363만원이던 가계소득은 437만원으로 역시 20% 가량 늘었다.

소비지출의 항목별로 보면 ▲경상조세(1만1500원→1만3650원) ▲비경상조세(1만1600원→1만1700원) ▲연금(9만1500원→1만21500원) ▲사회보험(9만1원→1만21900원) ▲이자비용(7만8000원→8만1400원) ▲가구간이전지출(20만4000원→21만2000원) ▲비영리단체로이전(9만1원→1만1500원) 등 모든 분야에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5년 동안 경상조세는 31.5% 상승했고 사회보험은 42%나 뛴 것이다. 20% 오른 가계소득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는 얘기다.

앞으로 이 같은 소비지출 증가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의 복지 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를 고집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복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전체 가계지출은 296만원에서 337만원으로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비지출이 228만원에서 256만원으로 12% 증가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계의 흑자율은 22.7%(67만7000원)에서 28.1%(100만7000원)로 5.4%포인트 높아졌다. 평균소비성향은 77.3%에서 71.9%로 5.4%포인트 낮아졌다.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조세와 준조세 성격의 각종 사회보험은 소득 증가에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가계의 의지에 따라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항목은 가능한 자체재라는 뜻이 된다. /이성주 기자

이 같은 소비 패턴 역시 고령화 사회,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맞닿아 있다. 주거·수도·광열(20.52%), 교통(18.62%) 등 꼭 지출해야 할 소비의 상승폭은 전체 소비지출의 상승폭을 넘어섰지만 교육에 쓰는 돈은 오히려 5년 전보다 감소했다. 교육비는 2010년 29만원에서 2015년 28만7000원으로 4.5% 감소해 12개 소비지출항목 중 유일하게 줄었다.

앞으로 살 날은 많이 남아있지만 노후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중장년층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래 소비를 대비하다 보니 현재의 소비를 크게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지 못한 시기에 은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가계 지출을 상승에 한 몫 한다.

미래 소득이 낮아질 것을 대비한 소비성향 저하는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IC경제연구원 이 년 보고서 ‘소비성향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10년 이상 소비성향 하락이 지속됐다.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일본 국민들이 미래 기대소득 증가율을 낮추고 소비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성주 기자



와인 박람회 구경오세요

롯데백화점이 잠실점 에비뉴엘에서 오는 10일까지 와인 박람회를 열고 봄을 맞아 ‘봄꽃 와인’을 비롯해 ‘우드브릿지모스카토’, ‘통그독 블랑’ 등 다양한 와인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전북테크노파크, 대학창업센터 찾아가는 R&D지원사업 설명회

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백두옥)는 R&D지원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도내 소재 대학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R&D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방문은 4일 원광대 창업보육센터를 시작으로 전주대, 전북대 입주기업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2016년 주요사업내용과 지원대상사업 등 입주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전달한다.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전북테크노파크 미래기획팀(063-219-2284)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신광영 기자

전개공,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동참

녹색아파트사업 적극 참여

전북개발공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녹색아파트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전북도가 추진하는 올해 녹색아파트사업에 혁신도시 에코2단지2가 참여한다.

참여 아파트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 참여, 기후변화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 1월 혁신도시에코2단지 전체 615가구 중 240여 가구에 대해 탄소포인트 신청을 받았다.

이달 15일 가정에너지 컨설턴트 교육 이수 후 소동행사, 가정에너지 진단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입주주민과 함께 에너지 절감운동을 펼

쳐나갈 계획이다.

올해 혁신도시에코2단지의 에너지 절감 실천운동의 우수사례를 피드백하고 공사가 관리중인 임대주택에 전파, 내년에는 5개단지 3,081세대가 추가로 녹색아파트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혁신도시에코2단지의 녹색아파트 사업 참여가 첫걸음이 돼 온실가스 감축이 비용 절감으로 입주민의 가정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환경보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공모사업 참여 아파트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교육, 온실가스 진단 등을 통해 우수아파트 3곳을 녹색아파트로 선정, 최우수상 1곳 2,000만원, 우수상 2곳 각 1,0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광영 기자

전북 지방기능경기대회 6일 전주공고에서 개최

전북도 2016년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오는 4월8일부터 11일까지 일동안 전주공업고등학교 등 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폴리메카닉스 등 39개 직종(한지공예, 부채만들기 등 지역특성화직종 포함)에서 409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입상자는 소정의 상금지급과 해당직종 기능사 시험이 면제되며 9월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올해 대회는 전북지역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명장과 전국대회 심사위원 참여 등 지역간 기술격차 해소와 공정성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이마트, ‘4월 절약의 발명’ 상품 선정

20개 생필품 최대 70% 할인

이마트는 라면 세계 구강청결제 등 주요 생필품 20품목을 4월 절약의 발명 상품으로 선정하고 오는 27일까지 최대 7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상품으로 삼양라면은 정상이 대비 9% 할인한 2780원, 한일반반 액체세제와 섬유유연제는 각 10% 할인한 8900원에 판매한다.

또 가그린 3종은 54% 할인해 3900원에, 선풍기 연두와 연두 숲은 31% 할인해 7800원에, 코디 내추럴 미용타수는 14% 할인해 6400원에 준비했다.

이외에도 봄 시즌 상품과 신선 먹거리를 4월 절약의 발명 상품으로 선보인다.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로 공기정정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코웨이 공기정정기를 정상이 대비 27% 할인한 21만8000원에 판매하고, 삼천리 시타바

이크를 16만9800원에 기획해 내놓이 용 자전거로 제안한다.

더불어 맛은 좋지만 크기가 작아 판로가 없었던 한입사탕을 오는 8일까지 9900원에 판매하고, 오는 7일부터 1주일 간은 돼지 앞다리와 뒷다리를 각 31%, 37% 할인해 100g 당 750원, 500원에 판매한다.

한편 이마트는 오는 13일까지 이마트 e카드도 ‘4월 절약의 발명’ 상품 및 전단 광고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 한해 5% 추가 할인을 제공해 고객 혜택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장영진 이마트 마케팅담당 상무는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꼭 필요한 생필품과 계절상품을 중심으로 ‘절약의 발명’ 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마트를 방문한 고객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절약의 발명’ 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LA, 매입임대주택 미임대

1287가구 입주자 모집

LA(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의 미임대 물량을 입주자격을 완화해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LA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현재 미임대 상태의 1287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세대까지 입주 가능해진다.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8만6666원 이하 세대까지 해당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1순위 입주대상은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인 자다.

입주자격 유지시 2년 단위로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최장 20년까지 장기거주가 가능하다.

3순위 접수 뒤 남은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구까지 자격을 완화해 오는 21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이성주 기자

전북銀, 뉴스마트뱅킹 모바일 앱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고객 편의성과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뉴스마트뱅킹 서비스 모바일 앱을 지난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뉴스마트뱅킹은 기존 금융결제원 공동 앱과 차별이 다른 전북은행에서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앱으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촬영하고 계좌이체 또는 상담원과 영상통화를 통해 은행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JB다이렉트와 스마트체크 서비스를 제공하

며, 지난 1월초 오픈 이후 더욱 업그레이드 했다.

또한, 개인, 기업, 카드, 금융상품 등 여러 개의 앱을 다룬다. 앱 하나에 하나의 통합된 앱으로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설정 없이 고객이 자주 쓰는 메뉴와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예금만기일 등 주요 금융거래 일정안내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체거래에 있어서도 즉시이체, 빠른이체, 간편이체, 큰글씨이체,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세이프터 치간편이체, 토스간편이체 등 쉽고 빠르게 이체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화 했다. /정영수 기자

JB카드 - 모아정보기술

선불카드사업 업무협약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 JB카드는 지난달 30일 모아정보기술(대표이사 이승덕)과 상호협력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위해 선불카드사업 업무협약 조인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선불카드’는 계획된 소비를 원하거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발급이 제한되는 미성년자 혹은 발급 부적격자, 해외 여행객, 멤버십 기능이 필요한 기업체 및 각종 단체를 겨냥한 카드시장으로 점차 이용액 및 사용자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전북은행 JB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모아정보기술은 충전식 선불카드를 운영하는 자본금 25억원의 견실한 증권 선불카드업자로서 JB카드와 업무협약을 통해 일부 제휴 가맹점에서의 사용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을 뛰어 넘어 전국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을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추게 되어 광복합민간 매출시장에 기대되는 업체이다. /정영수 기자

국립서울시립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이 도시 품격의 전주